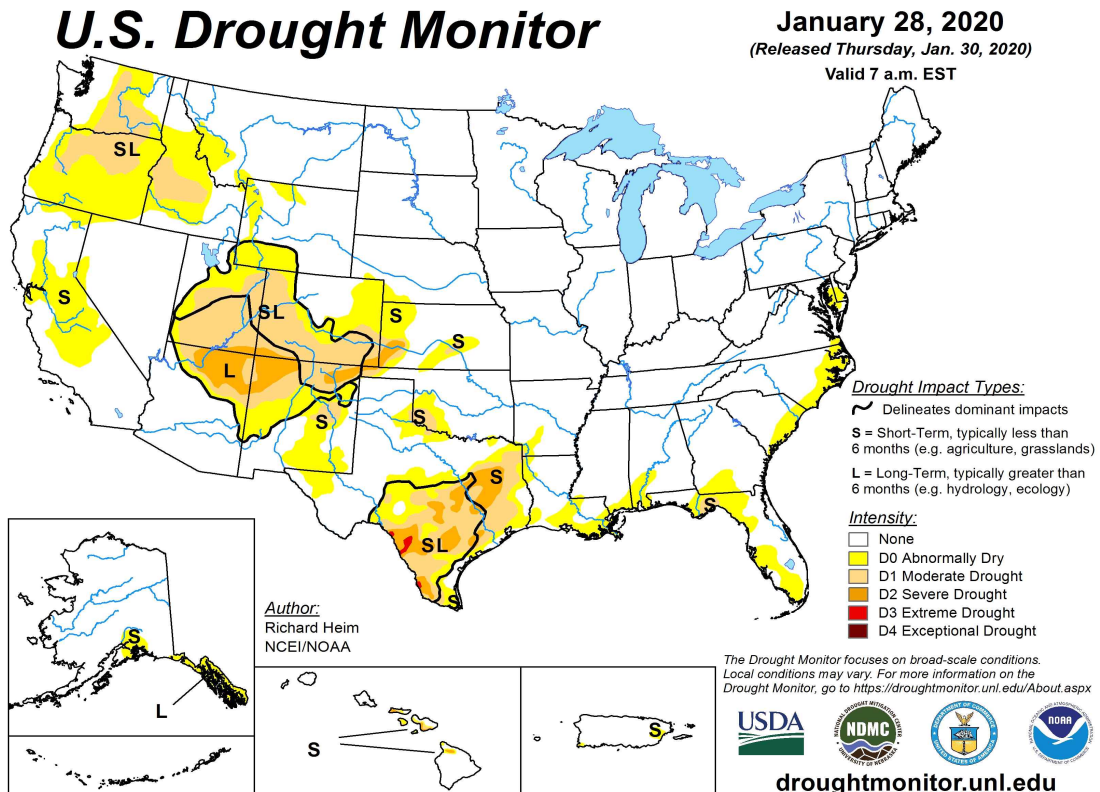


2월 4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7, No. 5)

□ 미국 기후 현황(1/26~2/1)

평년 근처 또는 그보다 더 높은 기온이 나라 전체를 지배하면서 1월은 아주 온화했다. 북부 평원의 대부분과 오대호 위쪽 지역 일부에서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최소 10° F 이상 높았다. 평년 조건보다 시원한 포켓들은 대체로 남동쪽 아래쪽에 제한적으로 있었다. 한편 북서부에는 폭풍우성 날씨가 계속되어 1월은 여느 때와 다르게 비가 많이 오면서 끝났다. 하지만 캘리포니아 중부와 남부에서부터 남서쪽으로는 대체로 건조한 날씨가 우세했다. 대체로 건조한 한 달 이후에 시에라 네바다에 있는 설피빙원의 평균 수분 함량은 1월 말 평균의 75 % 미만이었다. 북부 평원과 중서부 지역은 1월말에 건조가 우세하기도 했다. 중서부 지역은 알맞은 건조 조건 중에 있으면서 저지대 홍수가 대체로 진정되었다. 더 남쪽은 유익한 눈이 캔자스 남서쪽을 중심으로 위치한 광범위한 고 평원 지역을 덮었다. 기타 지역은 강수 기간들이 멕시코 만 해변에서부터 북쪽으로 오자크 고원과 오하이오 계곡까지에 있는 지역에 영향을 주었다. 가장 심하게 내렸던 비 중에 얼마는 남플로리다에 내렸다.



□ 세계 기후 현황(1/26~2/1)

■ 유럽: 국지적인 건조와 가뭄이 남유럽 일부 지역에 남아 있기는 했지만, 대륙 대부분에서는 광범위한 비가 보고되었다. 새해가 아주 건조하게 출발 한 후에 프랑스와 스페인 북부에서부터 발트해 국가들까지 중간 및 강한 소나기들이 (10-50 mm, 지역적으로 그 이상) 보고되었고 발칸 서부에서부터 북동쪽으로 헝가리까지 제 2의 비슷한 강우 지역들이 나타났다. 이 비는 1월 초부터 대륙의 많은 지역에 자리 잡아 왔던 질질 끌어왔던 단기 건조를 완화시켜서 영양 생장 중인 북부 스페인의 밀과 보리뿐만 아니라 휴면 중인 겨울 밀과 유채에게 필요한 수분 보유량을 향상시켰다. 그러나 장기적인 강수량 부족이 우세했던 (90일 강수량이 지역적으로 평년의 50 % 미만) 독일 남동부에서부터 폴란드 중부까지는 더 많은 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습한 날씨 양상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와 다뉴브 강 골짜기의 낮은 곳에는 건조한 조건들이 관찰되었다. 건조와 가뭄은 후자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곳의 30일 및 90일 강수량은 각각 10 %와 50 % 미만으로 유지되었다. 유럽의 많은 곳에 걸쳐서 구름과 소나기가 있었지만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6° C 높게 유지되어 1차 재배 지역은 눈 덮임이 없어서 더 따뜻한 서부 및 남부 재배 지역에서 다소 계절에 맞지 않게 이른 초겨울 녹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 호주: 2주간 유익한 비가 내린 후에 퀸즐랜드 남부와 뉴 사우스 웨일즈 북부는 대체로 다시 건조한 날씨로 되돌아왔다. 국지적인 소나기들 (지역적으로 15 mm 부근)이 점점 내렸지만 심각한 장기 가뭄이 휩쓸고 있는 호주 동부 지역의 가뭄을 거의 해소해주지 못했다. 사실상 여름작물의 전망은, 특히 재배 기간 중 거의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는 건조와 장기간 더운 날씨로 고통 받아온 건조 농작물들은 여전히 열악했다. 주요 여름작물 생산 지역에서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3-6° C 높았다. 남부 재배 지역에서는 최고 기온이 낮은 섭씨 40도 대까지 올라갔다.

■ 아르헨티나: 산발적으로 내린 소나기들이 여름작물들에게는 대체로 좋은 조건들을 유지했지만 몇 군데 핵심 생산 지역들에서는 몇 개의 건조 포켓들이 남아 있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총 강수량은 10-25 mm 였는데 코르도바 중심부에서 남동쪽으로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동부를 지나기까지에 걸쳐 있는 지역은 예외였다. 나중에 심은 옥수수과 콩이 생식 단계를 지나고 있는 중에 코르도바에서는 2주 째 건조했다. 한편, 부에노스아이레스 남부에 유익한 비 (10 mm 이상)가 내려서 국지적으로 약간 건조 문제를 해소해주어서 두 번째 심은 콩의 발아를 위해 적시에 수분을 공급해주었다. 대부분의 주요 농업 지역에는 주간 평균 기온이 평년 근처이거나 평년보다 낮았지만 아르헨티나 중부에서 높은 수확을 내는 농업 지역들 대부분 (특히 부에노스아이레스 북부와 코르도바에서부터 엔트레 리오스까지 인접한 지역들)에서는 낮 최고 기온이 낮거나 중간 정도의 섭씨 30도 대에 도달했다. 아르헨티나 정부에 따르면 옥수수와 콩은 1월 30일 현재 각각 98 % 및 96 % 파종되었다. 두 번째 심은 콩은 남부 부에노스아이레스를 대표하는 탄딜과 트레스 아로요스에서 각각 88 % 및 97 % 파종되었다.

■ 브라질: 브라질의 많은 곳들에 계절을 벗어난 가벼운 비가 널리 내려서 콩과 기타 주요 철 여름작물들의 수확을 유리하게 해주었지만 2차 재배철 농작물들에게 필요한 수분은 제한했다. 남부의 넓은 지역 (마토 그로소 도 술과 상 파울로의 남쪽)에 내린 비의 총 강수량은 25 mm 미만으로 최고 기온은 거의 매일 낮거나 중간 수준의 섭씨 30도 대였다. 파라나 정부에 따르면 1월 27일 현재 거의 모든 주철 옥수수와 콩은 생식에 도달했다. 두 작물 모두



2 % 수확이 끝났다. 두 번째 심은 옥수수는 4 % 파종되었다고 보고되었다. 리오 그란데 도
솔에서는 1월 30일 현재 옥수수의 86 %와 콩의 63 %가 생식 및 종실비대기에 도달하였고
옥수수의 26 %는 이미 수확되었다. 마찬가지로 출현 중인 옥수수와 콩을 위해서는 중앙 서
부와 북동부 내륙 지방 (마토 그로소 동쪽에서부터 서바히아와 주변 전체)에 비가 더 일정
하게 내려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정부 보고에 따르면 1월 31일 현재 콩은 27 % 수확되
었고 옥수수와 면화는 각각 22 %와 83 % 파종이 완료되었다.